

# 시니어 순모임(5월)

인도 : 순장  
대표기도 : 말은이

📍 찬 양 —————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다같이

📍 대표기도 ————— 말은이

📍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한 달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본인의 기도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니다)

📍 말씀 나누기 ————— 말은이

📍 합심기도 ————— 다같이  
1. 가정의 달, 온 가족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2. 펜데믹 이후 성도들의 예배자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 광 고 ————— 말은이

📍 주기도문 —————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 5월 13일(토) 오전 10시 본당에서 “시니어 봄축제”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주안에서 교제와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시편 23편 암송(8월 30일까지)을 계속해서 도전해 보세요

## 405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통일 458)

E. A. Hoffman(1839-1929)  
조금 빠르게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산 33:27)

평안과 위로  
SHOWALTER: 109.109.109F.  
A. J. Showalter, 1887

1. 주의친절한 팔에안기세 우리맘이평안 하리니  
2. 날이갈수록 주의사랑이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3. 주의보좌로 나아갈때에 기뻐찬미소리 외치고

항상기쁘고 복이되겠네 영원하신팔에 안기세  
천성가는길 편히가리니 영원하신팔에 안기세  
겁과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팔에 안기세

후렴  
주의팔에 그크신팔에 안기세  
주님의팔에 주님의팔에

주의팔에 영원하신팔에 안기세  
주님의팔에 주님의팔에

쉬운 가타코드(capo=1st) Ab→G Db→C Eb→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시편 147:10-20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10절, “여호와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힘이 없어, 군대가 약해서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군사력과 물자를 보충하고, 전력을 세우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은 이유를 군사력이 약하고 전쟁물자가 적고, 성벽이 허술해서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홍해 앞에서 세계 최강 이집트 군대가 말을 몰고 오는 위기의 순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도 없었고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모세가 들은 것은 지팡이지만, 홍해를 가르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런 군사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갔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군사력이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의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엄청난 말들을 애굽에서 사들여옵니다. 게다가 세계 최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 강력한 군사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상의 파워를 얻으려고,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성경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를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뒤로 하는 것이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 두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하는 모습 나옵니다.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과 싸우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역대상 18:4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사로잡은 천 마리 말 가운데 100마리만 남기고 900마리 말의 힘줄을 끊어 버립니다. 이 때 다윗의 위대한 신앙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말의 힘줄이 아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11절, ‘여호와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을 시편에서만 14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로써 죄인 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다윗,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침상이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하며 고통스럽게 절규합니다. **시편 51: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해 ‘그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모세와 다윗, 바울과 제자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 등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기쁨의 대상으로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19-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데도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게 한 것입니다.